

조선시대 경직도의 변천과 그 의미

이 수 진*

목 차

- I. 머리말
- II. 경직도의 수용과 활용
 - 1. 경직도의 수용
 - 2. 경직도의 활용
- III. 조선식 경직도의 등장
 - 1. 월령식 도상의 연원
 - 2. 조선식 경직도의 사례
- IV. 맺음말

국문초록 | 이 글에서는 역사 기록과 회화 자료를 통하여 조선시대 경직도의 변천 과정과 그것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 사회에 경직도가 도입된 배경으로는 유교 경전을 중시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관습, 그리고 당시 발달한 중국 강남농법 적용을 통한 농업 기술 제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왕에게 경직도는 修身과 자신의 정치 이념을 천명하는 도구였다. 영조는 경직도를 왕위계승에서 정통성을 보완하는 기재로 삼았고, 고종은 재위 초기 경직도를 거론함으로써 왕권의 토대를 강화하려 하였다.

왕세자에게는 경직도가 농상의 어려움과 백성의 고됨을 체득하게 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시강원에서 제작 및 진설을 담당한 회화 자료는 후대의 왕세자에게 전해져 대를 이어 활용되었음이 『춘궁일기』에서 확인된다. 궁중에서 쓰인 경직도는

* 李秀珍 대전대학교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 강사 sjlee@dju.kr

투고일: 2024. 4. 17. 심사완료일: 2024. 6. 24. 게재확정일: 2024. 6. 27.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6..355>

조선 후기에 이르면 활용 계층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윤봉오의 『석문집』에 따르면, 경직도를 지방 관리가 가지고 농정에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패문재경직도 전래 직후 경직도는 월별로 농가에서 농사짓고 잠직하는 모습이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조선식 경직도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도상 변화는 화풍의 영향도 있지만, 『예기』 「월령」과 『시경』 「빈풍칠월편」을 조선의 시의와 풍속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숙종의 『열성어제』와 이옥의 『박천집』에서 그러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경직도가 화목을 넘어 국정운영에서 적극 활용된 것은 조선 사회에서 경직도가 갖는 위상과 의미를 보여준다.

핵심어 | 경직도, 누숙경직도, 패문재경직도, 무일편, 빈풍칠월편, 월령

I. 머리말

耕織圖는 농사짓고 잠직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중국 南宋 시기 『詩經』 「豳風七月篇」을 근간으로 그려진 樓璣耕織圖가 시초이며, 清代에 누숙경직도를 관화로 만들고 佩文齋耕織圖라 칭했다. 누숙경직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연산군 4년(1498) 權景佑가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패문재경직도는 청에서 제작된 1697년 곧바로 조선으로 전해졌다.

경직도가 학계의 관심사가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고 근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경직도의 화풍 변천 및 관련 사료에 대한 집성이 이루어졌다. 경직도 연구는 화풍 변천 양상 검토, 그리고 자료 집성 및 성격 해명 등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전자는 중국적 경직도 도상이 차츰 조선적인 민화풍으로 변천하였음을 밝혔다.¹⁾ 후자는 경직도 관련 문헌자료를 종합적

1) 홍선표, 「조선시대 풍속화 발달의 이념적 배경」, 『풍속화』 (한국의 미 19), 중앙일보사, 1985.

鄭炳模, 「豳風七月圖類 繪畫와 朝鮮朝 後期 俗畫」, 『考古美術』 174, 韓國美術史學會, 1987.

으로 검토하거나²⁾ 한중일 경직도를 집성하고 분석하였으며,³⁾ 근래에는 경직도에 내포된 정치적 성격에 주안점을 두어 검토하기도 하였다.⁴⁾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경직도의 변천 및 성격 등이 대체로 해명되었지만, 화풍 변천 양상에 대한 연구와 사료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경직도의 수용 및 활용, 그리고 변천 양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왕에 알려진 사료를 재검토하는 것에 더하여 새롭게 찾은 자료가 지닌 함의를 풀어 보고자 하며, 이어 그것을 도상 변천 양상과 결부 지우면서 시기별로 경직도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것의 성격은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경직도의 수용과 활용

1. 경직도의 수용

경직도는 『書經』과 『詩經』을 토대로 탄생한 無逸圖, 豳風七月圖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에서 『서경』과 『시경』은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이 반드시 읽고 체득해야 할 필수 지침서였다.

『서경』의 「無逸篇」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업을 연 선조를 잊지 말고 선정을 이어가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또한, 왕실 안에서만 자라 백성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후대 왕이 방탕함이나 사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 「朝鮮時代 後半期 風俗畫의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金榮煜, 「조선시대 王室 鑑戒畫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2.

2) 金順娥, 「朝鮮時代 耕織圖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 이매, 「조선시대 中國 耕織圖의 유입과 수용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2.

4) 송민수, 「조선시대 왕실 패문재경직도의 제작 의미」, 『기초조형학연구』 23, 한국기초조형학회, 2022.

도구였다.⁵⁾

무일도는 「무일편」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중국 문헌에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北宋 仁宗 즉위년(1022)에 학사였던 孫奭이 인종에게 무일도를 그려 바쳤고 그것을 講讀閣에 걸어두라고 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서는 고려 太祖의 訓要十條에 무일편을 그림으로 그려서 걸어놓고 출입 때마다 보면서 觀省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후 무일도는 그림, 글씨, 도식 등 여러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임금이 가까운 신하에게 하사하거나 신하가 써서 진상 하기도 하였다.⁶⁾

빈풍칠월도는 『시경』 「豳風七月篇」의 내용을 그린 그림이다. 「빈풍칠월편」은 각 달에 나타나는 자연현상과 농민이 해야 하는 일들을 읊은 시가이다. 중국에서 빈풍칠월도에 대한 기록은 唐의 서화론가인 張彥遠의 『歷代名畫記』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晉 明帝의 작품 목록 중 ‘豳詩七月圖’를 찾아볼 수 있으나 현전하지 않고, 현전 작품 가운데는 南宋 화가 馬和之의 <빈풍칠월도>가 가장 오랜 것이다.⁷⁾

農本主義 국가인 조선에서 「빈풍칠월편」이 중시되었음은 기록에서 다수 확인된다. 즉, “대저 人君께서는 깊은 궁에서 출생하여 부유하고 귀하게 성장하게 되므로 농사짓는 어려움, 백성이 기빠하고 슬퍼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에 옛 帝王들은 모두 『서경』 「무일」과 『시경』 「빈풍」을 유념하였습니다. 벽 에 그림을 걸어놓고 보기도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도 유념하소서.”⁸⁾ 라는 언급을 비롯하여, 조선 초 이래 왕에게 「무일편」과

5) 장지연, 「고려~조선 초 『書經』 「無逸篇」과 『洪範篇』 이해의 변화」, 『사학연구』 112, 한국사학회, 2013, 127~136쪽.

6) 鄭炳模, 「朝鮮時代 後半期の 耕織圖」, 『미술사학연구』 192, 韓國美術史學會, 1991, 28~30쪽.

7) 鄭炳模, 위의 논문, 1991, 31쪽.

8) 『成宗實錄』 권23, 成宗 3년(1472) 10월 21일 “大抵人君生於深宮, 長於富貴, 不知稼穡之艱難, 生民之休戚, 是以古之帝王, 於書之無逸, 詩之豳風, 莫不留心焉. 或有圖揭壁上以觀之者, 願殿下留意.”

「빈풍편」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사례가 보인다. 또한 “청컨대, 幽風詩의 매 農月을 그림으로 그려서 두고 보소서.…… 農政을 제대로 펼치려면 빈풍시를 그려야 한다는 것은 비록 의례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堯, 舜, 三王의 고사로써 항상 경계하고 되돌아보는 일인 바 무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⁹⁾ 라고 하여 빈풍시를 그린 빈풍도의 쓰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農政이 중요한 국정 과제였다. 왕실에서는 왕과 왕비가 직접 밭을 갈고 누에를 치는 의식인 親耕儀禮와 親蠶儀禮를 거행하면서 그 의미를 모두 『서경』의 「무일편」과 『시경』의 「빈풍칠월편」에서 찾았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친경례를 거행한 왕은 성종이다.¹⁰⁾ 그는 왕세자와 문무백관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과거의 친경례와 친잠례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農桑은 王政의 근본이고 衣食의 근원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옛날에 王은 親耕하여 농사가 우선임을 보였고, 왕후는 親蠶하여 베 짜는 일을 권장하였다. 『書經』 無逸篇의 농사가 중요하다는 것, 『詩經』 幽風章의 뽕잎 따는 일에 관한 시는 모두 백성의 生業을 중히 여기고 입을 거리와 먹거리의 뿌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¹¹⁾

이 기록을 보면 농사짓고 잠직하는 시범을 보이는 것은 백성의 생업을 이해하고 농업을 장려하고자 함이었으며, 『서경』 「무일편」과 『시경』 「빈풍칠월편」의 뜻에 따랐음을 알 수 있다.

9) 『成宗實錄』 권199, 成宗 18년(1487) 1월 29일 “請圖《幽風詩》每農月留覽, …… 修農政曰圖《幽風》詩者, 雖若文具, 然以堯, 舜, 三王之事實警省, 不爲無益也.”

10) 친경의식은 조선에서 모두 16차례 거행되었다. 성종대의 친경은 조선시대에 시행된 첫 행사였다는 점과 친경 전 제사에서부터 친경 후 賞典과 頒赦, 四民의 관람 禮에 이르기까지 의식 전반에 걸친 전범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지영, 「영조대 親耕儀式的 거행과 『親耕儀軌』」, 『한국학보』 28, 일지사, 2002, 56쪽.

11) 『成宗實錄』 권275, 成宗 24년(1493) 3월 21일 “農桑, 王政之本, 衣食之源, 不可緩也. 古者, 王親耕以爲農先, 后親蠶以勸女紅, 《無逸》田功之戒, 《幽風》條桑之詩, 皆所以重民生而開衣食之源也.”

이처럼 농업과 잡업을 중시하고 권면하며, 감계를 목적으로 유교 경전을 그림으로 그리는 전통 위에 조선 초기부터 농상 관련 회화가 그려졌다.

누숙경직도는 연산군 4년(1498)에 이르러 중국에 다녀온 權景佑가 귀국길에 가져오면서 왕실로 전해졌다. 이 그림은 농상의 실정을 작업 순서대로 耕圖 21장면, 織圖 24장면으로 그리고, 시를 덧붙인 것이다.

누숙경직도의 수용 배경이 아직 해명되지 않았으나 당시 사대부들의 관심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초기 사대부들이 중국 남송의 강남 농법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조선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¹²⁾에 주목한다면, 남송 농법이 표현된 누숙경직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을 수 있다.

成俔의 「奉教耕織圖後序」에는 누숙경직도에 대한 상세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무오년 봄에 正朝使 權景祐가 명나라 서울을 다녀오면서 <경직도> 1절을 바친바, 그것은 송 參知政事 樓鑰의 백부 樓璣이 지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힘써 일하는 사정을 빠트리지 않고 하고 있어 세필로 그려 낸 솜씨가 모두 정치하고 신묘한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성상께서 한 번 보시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시며 화공에게 글과 그림을 다시 그리고 색을 입히도록 명하셨습니다. 또 任士洪에게는 序詩를 쓰도록 명하여 출입할 때마다 보고 반성하는 자료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이 그림을 가까이 두고 살펴 백성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라의 토대가 견고해야 함을 아시어 적절히 부리신다면, 농사와 길쌈에 때가 있음을 알아 살펴보고 권하신다면, 흉년에 먹거리가 없음을 알아 구휼해 주신다면, 추위에 옷이 없음을 알고 옷을 주신다면, 힘든 공역을 느슨하게 하고 세금을 줄여 백성들이 서로 살리고 기르게 하여 효제충신의 가르침을 받들게 하신다면, 이 그림이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바탕이 됨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이 경직도는 <빈풍도>나 <무일도>와 더불어 가치있게 여겨져 사라지지

12)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2008, 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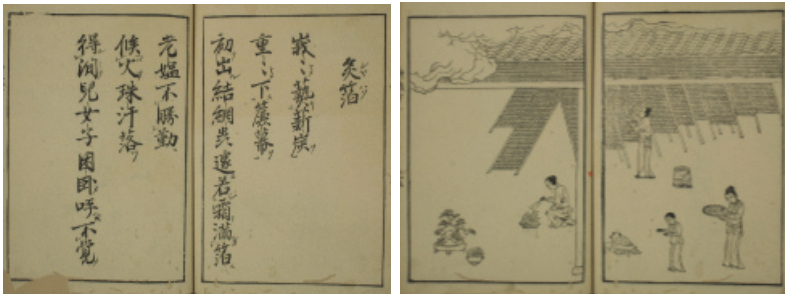
않을 것입니다.¹³⁾

위 글을 통해 15세기 말 조선에서 누숙경직도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산군은 권경우가 바친 누숙경직도를 모본으로 하여 채색을 가미한 경직도의 제작을 지시하였다. 성현은 경직도에 백성의 힘든 삶이 그려져 있어 국왕에게 관성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백성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적절히 조처하는 등 治道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권경우가 바친 누숙경직도는 명나라 天順 6년(1462)에 宋宗魯가 제작한 것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종로의 刊本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重刊本이 남아 있다. 즉, 일본 와세다대학 도서관 소장 카노 에이노(狩野永納, 1631~1697) 중간본이 그것이다. 이것은 시문이 양쪽에 배치되고, 시에 묘사된 장면이 다음 장에 삽입되어 있다[그림 1]. 누숙경직도는 中宗대에도 전해졌는데, 중종은 그것을 병풍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¹⁴⁾

13) 成俔, 「奉教耕織圖後序」, 『虛白堂集』 7권. “乃戊午春, 正朝使權景佑回自京師, 奉《耕織圖》一帙以進, 卽宋參知政事樓鑰伯父璫之所爲. 民間勞悴之狀, 靡不畢錄, 毫毛意匠, 悉皆臻妙. 重瞳一覽, 卽契于衷, 命畫工描其蹟, 彰施繪彩, 又命任士洪書其序詩, 以備出入觀省. 臣竊惟民之所甚苦者, 莫如田夫, 紅女也, 而人主宴安之所易忘者也. 古之聖王, 無不務乎穡事, 而逸王慢之, 故耕籍親蠶之禮, 罕見於青史, 無惑乎民之失業而流離也. 今我殿下撫玩此圖, 勤卹民隱, 知邦本之可固而節以使之, 知農績之有時而督以勸之, 知荒歲之無食而賑給之, 知祈寒之無褐而衣被之, 寬其力役, 薄其稅斂, 使民相生相養, 得循其孝悌忠信之教, 則是圖之有資於治道, 夫豈少哉? 其與《豳風》、《無逸》之圖, 竝美而不朽矣.”

14) 『中宗實錄』 권13, 中宗 6년(1472) 5월 25일 “傳于政院曰: 今見《耕織圖》, 只載圖書詩文, 不便於披閱. 以此作屏風三件以進, 常欲觀覽也.”



[그림 1] 狩野永納本, 『樓璫耕織圖』, 목판화, 早稻田大學.

청대 패문재경직도는 숙종대에 이르러 수용되었다. 숙종 23년(1697) 청으로부터 왕세자 책봉을 허락받기 위해 奏請使로 다녀온 崔錫鼎에 의해서였다. 패문재경직도는 누숙경직도를 궁정화원 焦秉貞이 康熙帝(재위 1661~1722)의 명을 받아 다시 판화로 만든 것이다.

패문재경직도는 청 강희제 때 간행 직후 수입된 것으로¹⁵⁾ 明清交替期를 거치며 청에 대한 반감이 컸던 조선이 패문재경직도를 수용한 이유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숙종이 왕위에 오를 무렵 중국에서는 南明정권이 이미 붕괴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명의 재건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에 청과의 화친정책에 외교력을 집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明義理論과 거리를 두면서 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외교의 기조를 설정하였다.¹⁶⁾ 특히 숙종은 문예군주로서 詩作에 몰두하였을 뿐 아니라 서화 애호 취미도 남달라 서화 정리와 보관 및 모본 제작을 적극 추진하는 등 예술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장려하였다.¹⁷⁾

15) 패문재경직도는 禦製耕織圖로도 불리는데, 序에는 ‘강희35년 춘2월 초일’이라는 글귀가 있다. 강희제는 그 해 刻本을 제작하라고 명하였다. 1697년 조선에 유입된 패문재경직도는 초판본일 가능성이 있다.

16) 노대환, 「숙종·영조대 對明義理論의 정치·사회적 기능」, 『한국문화』 32,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155~158쪽.

17) 유미나, 「17세기, 인·숙종기의 圖畫署와 畫員」, 『강좌미술사』 34, 한국불교미술사학

숙종은 패문재경직도를 병풍으로 제작하라고 명했는데 그 목적은 세자에게 내려주기 위함이었다.¹⁸⁾ 같은 해 畫員 秦再奚가 그린 <잠직도>에 御製를 써 세자에게 하사하였다. 숙종은 현종의 元子이자 嫡長子로서 절대적인 지위에서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 엄격한 왕세자 교육을 받았으며,¹⁹⁾ 즉위 후에는 이를 강력한 왕권 행사로 결부시킬 수 있었다. 또한, 확고한 정통성을 왕실 운영의 정당성으로 치환하여 왕가의 계통을 바로잡았다. 숙종이 왕권은 물론 왕실의 권위를 크게 향상시킨 바탕에 철저한 왕세자 교육이 있었음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한편, 숙종과 희빈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세자는 원자로 호칭이 정해질 때부터 조정에서 논란이 있었다.²⁰⁾ 숙종이 세자에게 경직도를 내린 것은 청의 세자 책봉 허가를 기념하는 일이자 이상적인 왕세자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은 세자에게 확고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림 2] 傳 秦再奚
〈蠶織圖〉, 1697년,
絹本彩色,
137.6×52.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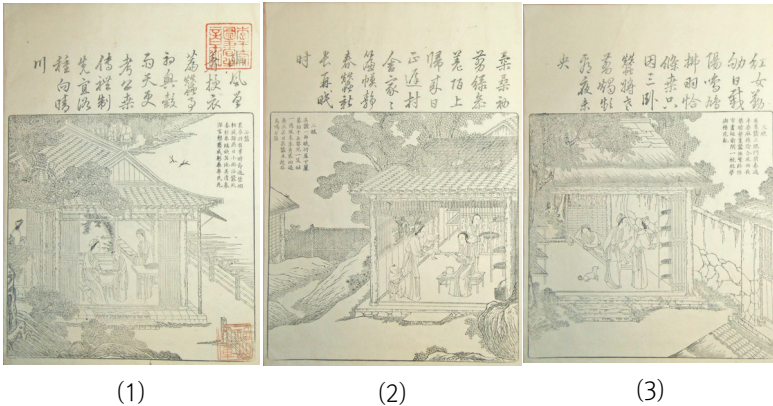
회, 2010, 147쪽.

18) 『列聖禦製』 권10 “奏請使崔錫鼎等回自燕京 進畫帖一本乃耕織圖 而清皇自製序文絕句而寫之書與畫皆刊印者也 其所以形容稼穡女紅之難者頗詳悉 洵可觀也 遂模作二屏障 欲以誨諭世子也 各題律詩一首”

19) 김지영, 『숙종대왕 이순의 성인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21~31쪽. 숙종의 원자보양관은 당대 주자학의 대가인 宋時烈, 宋浚吉, 金佐明, 金壽恒이었으며, 시강원에는 문학 김석주, 설서 윤지선, 보덕 이숙, 필선 김익렴, 겸필선 심재, 겸문학 홍만용, 사서 김만중, 검사서 이유상, 겸설서 홍만중 등이 보임되었다.

20) 『肅宗實錄』 20권, 肅宗 15년(1689) 1월 10일.

진재해가 그린 <잠직도>[그림 2]는 『列聖禦製』에 패문재경직도를 보고 숙종이 지은 題耕圖,²¹⁾ 題織圖²²⁾가 남아 있어 織圖와 蠶圖로 구분되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은 청록으로 채색된 산수를 배경으로 집안에서 누에 치는 세 장면으로 구성된다. 각 장면은 패문재경직도 직부의 제1도부터 제3도에 해당하는 浴蠶[누에알 씻기]·二眠[둘째 잠]·三眠[셋째 잠][그림 3]이다. 아래로부터 근경, 중경, 원경이 차례로 배치된 각 장면의 묘사는 패문재경직도와 같으며 단지 좌우가 반전되었을 뿐이다. 잠직도 안의 세 장면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패문재경직도>와 비교했을 때 도상의 크기가 완전히 일치하며 좌우만 반전되었는데, 이는 그림의 전체 구도에 맞추는 과정에서 변용한 것이다.²³⁾



[그림 3] 焦秉貞, 『佩文齋耕織圖』, 1696년, 종이 인쇄, 23.7×24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浴蠶, 2.二眠, 3. 三眠)

21) 『列聖禦製』 권10 肅宗, 題耕圖 “布穀催耕處處聞, 可憐從此日勞筋, 陽和播種農功始, 蒸暑耘苗苗粉, 纔喜勃然盈祿野, 更看大稔捲黃雲, 田家無限艱難事, 捲入圖障大夕昕”
 22) 『列聖禦製』 권10 肅宗, 題織圖 “春日遲遲正向暄, 女攜筐筥採桑繁, 辛勤燈下閑來少, 機杼窓邊煩, 北陸窮冬身可庇, 西稜永世澤留存, 欲令四海無寒者, 也自宮庭德尚敦”
 23) 이혜경, 「傳 진재해의 丁丑年作 <蠶織圖> 소고」,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도록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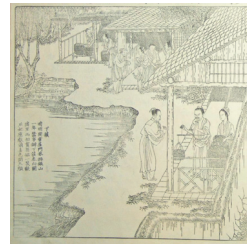
패문재경직도 수용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건국대학교박물관 소장 <佩文齋耕織圖>[그림 4]가 있다. 이 작품은 건본에 청록과 금분으로 여러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18세기 후반 궁중화원에 의해 그려진 것 같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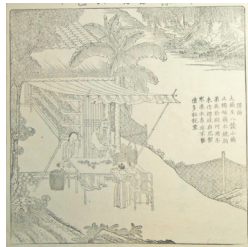
[그림 4] 作者未詳,
<佩文齋耕織圖>,
絹本彩色,
106.8×40.3cm,
건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제1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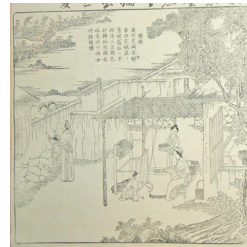
(1)



(2)



(3)



(4)

[그림 5] 焦秉貞, 『佩文齋耕織圖』, 1696년, 종이
인쇄, 23.7×24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 灸箔, 2. 下簇, 3. 擇繭, 4. 練絲)

국립중앙박물관, 2006, 194쪽.
24) 金榮煜, 앞의 논문. 2012, 41쪽.

<잠직도>와 달리 패문재경직도의 장면을 한 장면씩 동일하게 산수 속에 배치하지 않고 여러 장면을 조합하여 그려 넣었다. 구성은 耕部 3폭(제3·5·6 폭)과 織部 3폭(제1·2·4폭)으로 이루어졌다. 경부에 해당하는 제3폭은 패문재 경직도의 제12도 二耘[두벌매기]·제13도 三耘[세벌매기]이, 제5폭은 제15도 收刈[벼베기]·제17도 持穗[도리깨질]가, 제6폭은 제20도 簞揚[벼 까부르기]·蠶[맷돌갈기]의 도상이 차용되었다. 직부에 해당하는 제1폭은 제9도 灸箔[잠상막기]·제10도 下簇[떨어놓기]·제11도 擇繭[고치고르기]·제13도 練絲[실 뽑기]가, 제2폭은 제12도 窩繭[고치 저장]·제18도 絡絲[실감기]·제20도 染色[물 들이기]·제21도 攀花[무늬넣기]가 제4폭은 제4도 大起[잠깨기]·제5도 提積[걸어쌓기]·제6도 分箔[잠상나누기]·제7도 采桑[뽕잎따기]의 도상이 차용되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멀어질수록 묘사된 여러 그림의 소재들이 차츰 작아지는 등 원근법이 구사되었고, 세부 표현에서 음영법도 구사되는 등 서양화법이 일부 반영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2. 경직도의 활용

조선으로 전해진 경직도는 농상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은 국왕으로 하여금 농업과 잠직에 관심을 두고 백성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감계화로 제작되었다.

현존하는 경직도의 형태는 병풍이 가장 많다. 경직도를 병풍으로 만든 이유는 관성에 있었다. 다음의 사료가 그 예가 된다.

승지 薑龜孫이 아뢰기를, “無逸篇과 七月篇을 베껴서 벽에 붙이라고 이르시니, 전하께서 거울로 삼아 경계하시는 뜻이 지극합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두 개의 병풍을 만들어 하나에는 무일편을, 다른 하나에는 칠월편을 써서

25) 홍선표, 『조선 회화』, CAS 한국미술연구소, 2014, 196쪽.

거처에 따라 살펴보시면 어떠하십니까? 하물며 거울과 여름의 처소가 다르므로 만약 한 곳의 벽에 붙이면 늘 살펴보실 수 없을 것이니, 옛 제왕이 병풍에 글을 쓴 까닭이 이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풍에 쓰는 것이 과연 옳겠다.²⁶⁾”

왕이 갖추어야 할 덕행은 백성의 삶을 헤아리고 안정시키는 데 힘을 쏟는 것이었다. 농사일의 어려움이 담긴 「무일편」과 「칠월편」은 병풍으로 제작되어 왕이 머무는 공간에 설치되었다. 왕은 이를 곁에 두고 늘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농잠의 번창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일이었기에 신하에게 경직도는 국왕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기본 도리와 같은 것이었다. 또한, 농정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를 잊지 말 것을 경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컸다. 이를 보여주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무릇 농사란 백성이 입고 먹는 원천이며, 나라 경영에 쓰이는 비용의 근본 이므로 빈풍칠월편, 무일편을 거울로 삼을 만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경직도를 자리의 오른쪽에 걸어두고 조석으로 늘 봄으로써 조금도 해이해 지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에 진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해 흉년이 들고, 역병까지 더해지니 종자와 식량이 모자라고, 밭은 황폐해졌으며, 농기구 없이 밭 갈고 김을 매니, “봄에는 밭갈이 상태를 살펴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가을에는 수확 상태를 살펴서 모자란 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農政이 이러하니 공과 사로 모두 곤궁하여 백성 가운데는 여덟 식구 정도를 부양할 수 있는 이가 없고 나라는 일 년 치 저축이 없으니, 나라의 쓰임으로 말하자면 백관에게 급료 주는 일 또한

26) 『燕山君日記』 권3, 燕山君 1년(1495) 2월 5일 “承旨姜龜孫啓曰: “命謄寫《無逸》,《七月》等篇, 貼壁, 殿下鑑戒之意, 至矣. 臣意, 作二屏, 一書《無逸》, 一書《七月》, 隨其居處, 以爲觀省, 何如? 況冬夏異處, 若貼於一壁, 則恐不能常常觀省. 古之帝王, 所以書屏者, 以此也.” 傳曰: 書屏, 果可矣.”

초라합니다.²⁷⁾

위 기록에서 연이어 흉년이 들었다는 표현은 당시가 소빙기²⁸⁾여서 농업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조선은 국왕을 중심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경직도의 제작에 반영되었을 것 같다. 이러한 시점에 신하는 왕에게 경직도를 거울삼아 관성에 힘을 쓸 것을 간언하였다. 왕세자 시절부터 부왕인 숙종에 의해 경직도를 이미 접하고 그것에 관해 교육받았을 景宗에게 위기에 빠진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하가 경직도를 거론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그림이 갖는 영향력의 반증 사례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관성과 관련하여 왕에게 무엇이 요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왕세자 교육의 목표를 통치자가 갖춰야 할 심성 도야 및 실천성 함양에 두었다. 이에 농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고, 경직도는 그와 관련하여 중시되었다.

왕세자는 구중궁궐에서 자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지 못하므로²⁹⁾ 그가

[표 1] 회화 자료의 유형

주제	자료명	형태	언급 횟수
耕織	耕織圖, 七月篇, 農桑圖, 耕桑十二帖圖, 十二月圖, 親耕圖	도첩, 족자, 병풍	12회
	심성·효행 孝子圖, 養正圖,	서적,	12회

27) 『承政院日記』 542책, 景宗 2년(1722) 7월 18일 “夫農者, 生民衣食之源, 而國家經用之本也. 豳風七月無逸一篇, 可以鑑矣. 殿下曷不以耕織圖, 揭之座右, 而朝夕常目, 罔或少弛, 以盡敬授之道耶? 目今屢經凶歉, 加以癘疫, 種食乏, 而田野荒矣, 農具無, 而耕耘矣, 春省補不足, 秋成助不給, 其又可望耶? 農政如是, 公私俱困, 民無八口之養, 國無一年之積, 試以國用言之, 則百官頒料, 尙且苟簡.”

28) 李泰鎮, 「小氷期(1500-1750) 천변재이 연구와 朝鮮王朝實錄」, 『歷史學報』 149, 역사학회, 1996.

왕위에 오르기 전 백성의 삶에 공감하고, 또 장차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경직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³⁰⁾

조선시대에 쓰인 그림에 관한 기록이 일부 남아 있다. 주제는 경직, 심성·효행, 勸戒, 제왕학, 聖賢 및 賢妃故事圖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이 가운데 심성·효행(12회), 경직(12

교육	善可爲法, 文王世子等編, 養正聖功圖, 三綱行實圖, 續三綱行實圖	화첩, 병풍	
勸戒	無逸篇, 戒言屏, 四箴, 心箴, 箴銘, 詩經 庭燎章, 心經圖, 古鏡重磨方	족자, 병풍	10회
제왕학	帝王可法圖, 聖學十圖, 洪範九疇圖, 龍飛御天圖, 夙興夜寐箴	서적, 족자, 병풍	7회
聖賢 및 賢妃故事	賢妃圖, 聖蹟圖, 武夷九曲圖	화첩, 족자, 병풍	5회

회)가 가장 많다. 유교 사회에서 우선적 가치를 지닌 심성·효행 그림과 더불어 경직도가 많이 활용된 것은 그만큼 농상이 왕세자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왕세자 교육에서 그림이 활용된 시기는 기본적 소양 교육이 이루어질 때였다. 대개 『小學』이나 『孝經』 등 초학 교재를 학습한 다음 經史類를 이수

29) 『孝宗實錄』 권10, 孝宗 4년(1653) 2월 4일 “上謂筵臣曰：人君不待躬稼，而宜先知穡事之艱難也。至如世子，生於深宮，何以知之？”

30) 『英祖實錄』 권69, 英祖 25년(1749) 4월 5일 “上又謂世子曰：民間疾苦則良役爲最，賦稅次之，而一粒一粟，皆從辛苦中出，一絲一縷，亦出寒女之手，豈不殘忍乎？爾若不恤吾民，使不免飢寒，則民將相泣於蔀屋之下，而怨爾曹爾，思之及此，寧不懷然？…… 又教曰：汝見耕織圖，以農功比之讀書，勞逸果如何耶？上不恤下，民必曰，‘吾君其忘我歟？’民雖不怨，彼蒼豈有眷愛之理歟？民者至愚而神，一政一令之臧否，民必知之，汝其毋忽焉。”

하는데,³¹⁾ 이러한 흐름은 회화 자료의 제작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東宮日記』에는 왕세자 교육에 사용된 회화의 화목이 있다[표 2].

[표 2] 역대 왕세자 교육용 회화 자료의 종류

시기	왕세자	동궁 지위	사용 연령	회화 자료
인조	왕세자(孝宗) 1619~1659	1645~1649	29세	無逸篇, 七月章, 箴·銘
			미확인	夙興夜寐箴, 聖學十圖
숙종	왕세자(景宗) 1688~1724	1690~1720	7세	養正圖
			9~10세	三綱行實圖, 續三綱行實圖, 農桑圖, 耕織圖
			미확인	耕桑十二帖, 心經圖, 洪範九疇圖, 武夷九曲圖
경종	왕세제(英祖) 1694~1776	1721~1724	28세	耕織圖
영조	왕세자(眞宗) 1719~1728	1725~1728	7~10세	耕織圖, 賢妃圖, 十二月圖, 養正圖, 善可爲法, 心經圖, 農桑圖, 洪範九疇圖, 武夷九曲圖, 聖學十圖, 帝王可法圖
	왕세자(莊祖) 1735~1762	1736~1762	2세	文王世子等編
			3세	養正聖功圖, 善可爲法
			5세	親耕圖
			8세	聖蹟圖
			10세	古鏡重磨方
			15세	耕織圖
			22세	詩經 庭燎章
	왕세손(正祖) 1752~1800	1759~1775	1세 무렵	孝子圖·聖蹟圖

31) 육수화, 「조선시대 왕위계승교육의 변화양상」, 『東洋古典研究』 44, 東洋古典學會, 2011, 319~320쪽.

정 조	왕세자(文孝世子) 1782-1786	1784- 1786	5세	聖功圖
--------	------------------------	---------------	----	-----

위 표를 살펴보면, 왕세자 교육에서는 <양정도>와 <성공도> 못지 않게 경직도의 언급이 많으므로 비록 초학교재는 아니었지만 경직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효종, 영조와 같이 특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왕세자와 왕세제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10세를 전후하여 회화 자료가 교육에 선택적으로 활용되었다.

[표 3] 景宗·眞宗 시강원 물품 목록

왕세자 교육에 사용된 회화 자료는 후대의 왕세자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왕세자가 보위를 이어 왕위에 오르면 왕세자 교육을 전담하는 侍講院은 잠시 해체된다. 이때 시강원에서는 물품 목록을 남겼는데, 『景宗春宮日記』와 『眞宗東宮日記』를 보면 회화 자료는 일정 기간 대대로 전해져 사용되었다. 경종의 세자 시절과 효장세자 때 사용된 시강원 물품 중 회화 자료를 보면[표 3] 경종이 사용한 회화가 진종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진종 때 사용된 <양정도병>, <심경

시기	화제	수량	기타	수량
景宗	入學稷屏	1	書筵廳屏	1
	進宴圖稷屏	1	紙屏	1
	養正圖屏	1	寢屏	2
	心經圖	1		
	洪範九疇圖	1		
	農桑圖	1		
	武夷九曲圖	1		
	총 11점			
眞宗 (효장세자)	入學稷屏	1	書筵廳屏	1
	進宴圖稷屏	1	紙屏	1
	養正屏	1	寢屏	2
	心經圖	1		
	洪範九疇圖	1		
	農桑圖	1		
	武夷九曲圖	1		
	聖學十圖	1		

도>, <홍범구주도>, <농상도>, <무이구곡도>가 경종 때에도 공통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학계병>과 <진연도계병>은 경종과 진종 때 시행된 행사장면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帝王可法圖	1		
	楔屏	1		
	총 14점			

국왕에게 경직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 같다. 우선적으로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관성의 도구였으며, 그와 아울러 자신의 통치 이념을 천명하는 도구이기도 하였다. 영조는 숙종 때 어명으로 제작된 경직도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아! 전에 보았던 <耕織圖> 首章에는 옛적의 御製가 있었는데, 그 그림은 바로 皇兄이 春邸에 있을 때 春坊에서 그려 올린 것이다. 내가 신축년에 세자가 된 후 이 그림이 반입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래쪽에 공경히 御詩로 화답하였으니, 끝 말에 ‘모름지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라.[須把此圖 仔細看]’라고 언급하였다. 지금 팔십을 바라보는데 만약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찌 ‘자세히 본다’고 말하겠는가?³²⁾

영조는 경종이 세자 시절 본 경직도를 자신도 보았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숙종의 업적을 말하며 자신이 그의 계승자임을 드러내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 노력하였다. 그가 어제경직도를 열람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 또한 왕세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왕위계승 과정에서 부족하였던 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왕의 경직도 활용 예는 고종 때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종은 12세의

32) 『英祖實錄』 권111, 英祖 44년(1768) 12월 17일 “噫! 曾見《耕織圖》首章, 有昔年御製, 此圖即皇兄春邸時, 春坊圖進者也. 予辛丑入銅閣後此圖來, 故予於下端, 敬和御詩, 末句曰, ‘須把斯圖仔細看’. 于今望八, 若不顧民, 豈曰仔細看?”

어린 나이에 제대로 된 왕세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등극하였다. 재위 초 경직도는 고종의 제왕 교육에 일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의 재위 기간 중 경직도 기록은 원년(1864)에 2회, 2년(1865)에 1회, 11년(1874)에 1회 보인다. 이 시기는 대원군이 집정한 때로, 고종은 제왕 교육을 받았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친정에 나서게 된다.³³⁾ 고종 즉위 시점에는 국정이 문란한 상태였다. 당시 조선은 세도정권 아래에서 일어난 지방관의 부패, 조세제도의 문란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민생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런 까닭에 ‘민본’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의 실천에 집중하였다.³⁴⁾ 그 과정에서 경직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경직도의 수요층 변화를 살필 수 있는 기록으로는 尹鳳五의 『石門集』6권에 수록된 「家姪林川守耕織圖跋」이 있다. 이 글은 영조 43년(1767)에 거행된 친경례 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친경의 거행은 백성에게 술선수범을 통한 농업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수령들에게 권농의 뜻을 정확히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정 3년인 정해년은 우리 주상의 재위 43년(1767)이다. 늦봄에 동적전에서 오토의 예를 행하고, 왕후께서 또 북궐의 언덕에서 친잠하시었으니 만민이 농상을 우선해야 함을 보이신 것이다. 이는 우리 왕조 400년 동안 종종 거행한 성대한 의례이다. 여러 차례 조칙을 내려 관리와 수령의 임무를 알려주셨다. 내 조카 심위가 외람되이 가림의 수령을 할 때 성상의 조서를 받자와 엮드려 읽으면서 두려워 떨었다. 백성을 걱정하는 뜻을 잘 받들어 실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경직도 몇 첩을 사서 短屏으로 만든 다음 늘 눈여겨보면서 좌우명으로 대신하였다. 아! 농사짓는 일은 먹거리의 근본이요, 잠직하는 일은 입을 거리의 근원이다.

33) 김성해, 『재위 전기 고종의 통치활동』, 선인, 2013, 79~80쪽.

34) 김성해, 위의 책, 104쪽.

三代의 정치에서 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즉 성상의 오늘날의 가르침은 실로 또한 이에 부합한다. 거룩하고 아름답도대! 그대는 이미 지방관의 책임을 졌으니 두 그림을 대할 때마다 농사짓는 어려움과 배 찢는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³⁵⁾

친경례가 거행된 시기에 林川郡守로 재직 중이었던 尹心緯(1716~)³⁶⁾는 경직도 短屏 두 점을 구입하면서 尹鳳五(1688~1769)에게 글을 청한다. 윤봉오는 제발에 먼저 친경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한 영조의 덕을 찬양하고, 이어 조카 윤심위에게 구입한 경직도를 좌우명으로 삼아 衣食의 근본인 농사와 잠직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농상 장려에 힘쓰라고 당부하였다. 윤봉오는 영조가 왕세제로 있을 때 世弟翊衛司의 세마를 지냈다.³⁷⁾ 더욱이 윤심위의 아버지 尹鳳九는 世子侍講院 進善과 書筵官³⁸⁾을 역임한 인물로 윤심위가 어떠한 경로로 경직도를 구입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글은 궁중회화를 지방의 수령이 소유할 수 있었고, 이 경직도를 농상 장려에 힘쓰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바로잡는 감계화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부친과 숙부로 이어지는 사상적 경향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무일도와 빈풍칠월도에 기반을 둔 경직도는 수용 직후 조선 왕실에서 통치자에게 백성의 어려움을 성찰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왕에게 경직도는 백성의 생활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치를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35) 尹鳳五, 「家臣林川守耕織圖跋」, 『石門集』 卷6 “崇禎三丁亥。卽我聖上之四十三年也。以暮春之月。禮行五推於東籍田。聖母又親蠶於北闕之墟。爲萬民農桑之先。蓋我朝四百年僅有之盛儀也。仍復渙發絲綸。飭守宰勸課之政。余從子臣心緯。時忝守嘉林。敬奉聖旨。伏讀震恐。思所以仰承軫民之德意。無至墜失。購得耕織數帖爲短屏。常目在之。替作座右之銘。噫。耕者。食之本。蠶者。衣之原也。三代之政。莫不以是爲重。則聖上今日之教。實亦有合於此。猗歟休哉。君既責在分憂。對二圖。念其稼穡之艱。杼軸之苦。”

36) 영조 42년(1766) 林川郡守에 임명되었다. 『承政院日記』 1260책.

37) 『承政院日記』 541책, 경종 2년(1722) 6월 17일.

38) 『英祖實錄』 59권, 英祖 20년 1월 23일; 『英祖實錄』 81권, 英祖 30년 3월 4일.

지표가 되었다. 특히 왕세자가 경직도를 알고 체득한다는 것은 차기 제왕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이 있음을 표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Ⅲ. 조선식 경직도의 등장

1. 월령식 도상의 연원

조선 초기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된 경직도는 패문재경직도의 수용 이후 화풍상 많은 변화를 보인다. 서화 작품을 선호하고 섭렵한 숙종은 패문재경직도를 수입한 직후 곧바로 병풍으로 만들 것을 명하였다. 초기에 제작된 경직도는 패문재경직도의 도상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차츰 월령 형식을 토대로 한 조선식 경직도로 변모하였다.

경직도가 ‘월령식’으로 변화한 것은 농업 중심 국가인 조선에서 초기부터 지속된 『예기』 「월령」과 『시경』 「빈풍칠월편」에 대한 관심과 활용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예기』 「월령」속 군주는 하늘의 때를 알아 적절히 사람을 써서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³⁹⁾ 즉 農本을 실현하기 위해 천시를 해석하고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더욱이 농민의 근면함에 농사의 성패가 달린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었다. 조선에서는 『예기』 월령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조선의 時候를 고려하여 재조정하였다. 태종대부터 「월령」에 따라 祀典을 정비하면서도 그 시후가 조선의 시후와 달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월령을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국가 운영원리로서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의 월령을 새롭게 구성하여 月令事目이나 <月令圖> 등을 만들었다.⁴⁰⁾

39) 한정수, 「高麗時代『禮記』月令篇의 도입과 그 의미」, 『월령과 국가』, 민속원, 2010, 137쪽.

「빈풍칠월편」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역시 조선 전기부터 점차 높아졌다. 세종은 「빈풍칠월편」과 「무일편」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지만 조선의 풍토가 중국과 다르므로 그에 맞게 그림을 제작하라고 명했다. 그것에는 백성들의 농사짓는 어려움과 부역의 고통을 달마다 그렸고, 경계하는 말을 함께 서술하였다.⁴¹⁾ 그에 따라 변계량은 月令에 대한 글을 작성하겠다고 아뢰었다. 이 그림은 매달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일을 그린 월령 형식이었을 것이다. 조선의 사정에 제대로 부합하는 빈풍칠월시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계속 이어져 세종은 조선의 칠월시를 만들라고 명하였다. 그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농사일의 소중함을 일깨우려는 것이었고, 내용은 조선의 납세, 부과금, 부역, 농업, 잡업을 조사하여 형상을 그리고 노래로 찬사를 쓰는 것이었다.⁴²⁾ 이것은 월별 농상 풍속을 정리하라는 하교와 연결된다. 즉, 칠월시나 월령은 농사에서 적절한 때를 알고 농상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장려하고자 할 때 준거가 되었기 때문이다.⁴³⁾

『시경』 「빈풍칠월편」과 『예기』 「월령」을 적절히 섞은 새로운 도상의 회화가 완성된다. 숙종 원년(1675) 副應敎 李沃은 두 자료를 바탕으로 帖子를 만든 다음 田家詩 12수를 지어 바쳤다. 이에 임금은 批答을 내리고 칭찬하며

40) 한정수, 「조선 초 月令의 이해와 국가운영」, 『韓國思想史學』 36, 한국사상사학회, 2010, 154~159쪽.

41) 『世宗實錄』 권26, 世宗 6년(1424) 11월 15일 “且周公《豳風》之詩,《無逸》之書, 亦可以鑑, 然本土之俗, 異於中國, 欲民間稼穡艱難, 徭役疾苦, 逐月作圖, 仍述警戒之語, 以便觀覽, 庶傳不朽. 季良啓曰: 地志及州郡沿革, 一體事也, 使兼春秋館一人掌之. 臣與卓愼, 尹淮共議撰之, 月令之文, 臣當任之. 上曰: 月令之文, 姑徐之, 地志及州郡沿革, 卿今撰進.”

42) 『世宗實錄』 권61, 世宗 15년(1433) 8월 13일 “予觀《豳風七月圖》, 因此而省念稼穡之艱難. 予則廣其視聽, 稍知農事之爲重, 子孫生長深宮, 不識耕耘之苦, 是可歎已. 古者雖宮中之婦女, 皆讀蠶農之書, 欲做《豳風》採我國風俗, 圖形贊詩, 使上下貴賤皆知農務之重, 傳之後嗣, 永世監觀. 惟爾集賢殿博採本國貢賦徭役農桑之事, 圖其形狀, 仍贊以詩歌, 以成我國七月之詩.”

43) 한정수, 앞의 논문, 2010, 166쪽.

권장하였다.⁴⁴⁾

이옥의 『博泉集』 別集, 『務本圖說』의 卷首에는 進筭과 함께 별도의 序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문집을 집필한 목적이 드러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숙종에게 농사일의 고충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무본도설』은 「빈풍칠월편」과 『예기』 「월령」 두 글을 모아 월별로 再編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고 아래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다. 본래 숙종에게 올릴 때는 圖帖 형식이었으나, 본집에는 圖가 누락되고 원문만 수록되었다.⁴⁵⁾

「빈풍칠월편」은 일 년 열두 달에 해당하는 일의 내용이 총 여덟 장으로 정리된 형식이었다. 이옥의 『무본도설』은 「빈풍칠월편」의 내용을 분류하여 열두 달로 재구성되었다. 절기와 그에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담긴 「빈풍칠월편」에 대해 李恒福(1556~1618)은 칠월편 후미에 題를 하면서 ‘위로 천인의 질서 바뀌는 것만 진술하고 공사 간의 노력은 언급하지 않았네.’라고 지적한 바 있다.⁴⁶⁾ 이옥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 마련을 위하여 政令이 담긴 『예기』 「월령」을 바탕으로 시후를 재해석, 1월에서 12월까지의 각 달에 해당하는 일을 모아 정리하였다. 이옥이 「빈풍칠월편」과 『예기』 「월령」을 함께 수록한 것은 두 글이 서로 보완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왕실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농상 관련 그림이 그려졌다. <耕圖>, <蠶圖>, <養蠶織造圖>, <農桑圖> 등의 명칭이 기록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경직도가 새로운 왕조의 체제 확립 과정에서 필요한 화목이었기 때문이다.

44) 『肅宗實錄』 권4, 肅宗 1년(1675) 7월 27일 “副應教李沃以《詩》《七月》篇、《禮記》《月令》篇爲帖子, 作田家詩十二首以進, 優批嘉獎之.”

45) 한국고전번역원의 『博泉集』 한국문집총간해제 참고. <http://www.itkc.or.kr/>

46) 李恒福, 「題七月篇後」, 『白沙集』 권1, “上陳天人節序移, 不及公私服事勞.”(고언희, 『그림, 문학에 취하다』, 아트북스, 2011, 183쪽에서 재인용).

특히 숙종대 제작되었다고 하는 <農家十二月圖>의 월령식 흐름은 실물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관련 작품의 효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농가십이월도>는 숙종 7년(1627) 兵曹判書 李翻(1626~1688)의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農家四時圖>를 홍문관에서 모사하여 올린 것이다.⁴⁷⁾ 다음의 기록에서 그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입시한 대신이 吏判 李翻의 집에 소장된 우리나라 農家十二月圖를 들어 예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청한 것은 대개 옛날과 지금의 형편이 다르고 풍토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상께서 들일 것을 명하시고 다시 본관으로 하여금 옮겨 모사하여 들이게 명하시었기에, 신 등이 보살펴 검사하고 교정하여 번거로운 것은 삭제하고 소략한 곳은 보충하였는데, 그림 그리는 일을 막 마치고 이제 비로소 올려드렸습니다.⁴⁸⁾

『열성어제』에는 숙종이 이 그림을 감상하고 지은 詩가 있다. 시의 서문에 “대개 초봄부터 늦겨울까지 농가의 큰 일과 작은 일 모두 그림으로 그렸으니, 진실로 하루라도 御座 옆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다만 병풍 제작은 지나치게 폭이 넓고 또 그것을 두 개로 나누었으니 관성하기에 불편하여 다시 畫工에게 명하여 하나의 병풍으로 똑같이 그려 만들게 하고 앞머리에 시를 붙였다.”⁴⁹⁾ 라고 하였다. 숙종은 홍문관에서 모사하여 올린 <농가십이

47) 『肅宗實錄』 권12, 肅宗 7년(1681) 10월 21일 “御書講. 領議政金壽恒同入, 因上方講《幽風》詩言: 唐宗《無逸山水圖》前後之異, 只在一念倣怠. 兵曹判書李翻家有《農家四時圖》屏, 宜備觀覽, 請令玉堂取入, 移模作屏以進. 上可之.”; 『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1682) 4월 11일 “戊子/弘文館進《農家十二月圖》, 仍上筭陳戒, 上優答之, 賜以豹皮.”

48) 『承政院日記』 289책, 肅宗 8년(1682) 4월 11일 “入侍大臣, 因請以吏判李翻家所藏我國農家十二月圖進, 備睿覽, 蓋爲其古今異宜, 風土不同也. 自上卽命取入, 更令本館, 移寫以進, 臣等, 看檢校讐, 刪煩補略, 繪事纔完, 今始投進.”

49) 『列聖御製』 권11 肅宗 “歲辛酉冬因大臣筵自, 取此圖本於故相臣李翻家而覽之, 仍付玉署, 使之圖進, 蓋自孟春至于季冬, 凡田家之事無大無小, 悉以輸之, 座側誠不可一日無也. 第屏制太廣, 且分以二之, 不便於觀省, 更命畫工, 模作一屏, 詩以弁首.”

월도>를 다시 만들라고 명하면서 <稼穡艱難圖>라고 이름 붙였다. 이 <가색간난도>에는 초봄부터 늦겨울까지 일 년 열두 달 동안 농가에서 행해진 일의 다양한 도상이 빠짐없이 담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십이월도’라는 명칭에서 조선적 색채가 간취되므로 이를 월령식의 흐름을 가진 조선화한 ‘경직도’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경직도는 대체로 경도와 직도로 나뉘며 농사짓고, 잠직하는 모습을 계절에 따라 나열하는 형식이었다. 헌종 12년(1846)의 기록에는 순조대에 제작된 경직도를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제작 경위와 경도·직도가 어떤 장면들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이 삼가 듣자옵건데 翼宗朝 대리청정시에 화공으로 하여금 耕과 織으로 나누어 병풍에 그리도록 하였으며, 또 규장각 신하에게 撰과 序를 쓰도록 하고 務本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庚寅 이후 완성되어 本閣에 삼가 수장하였습니다. 聖意를 돌이켜 생각하니 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임금께서 “내가 미처 그 일을 알지 못하니 규장각 신하 중 누가 찬과 서를 썼는가?”물으셨다. 순목이 아뢰기를, “耕圖의 서는 상신 金履喬가 찬하였고 織圖의 서는 상신 朴宗薰이 찬하였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경직도를 어찌하여 나누어 그렸는가?” 순목이 아뢰기를, “경도는 播種부터 穫稻까지, 직도는 養蠶부터 成織까지입니다.” 50)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순조가 세자에게 代理聽政을 하게 한 1827~1830년 사이에 경직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830년 이후 완성되었다.⁵¹⁾ 경직도는 병풍으로 제작되었고, 閣臣 김이교와 박중훈이 찬하였다.

50) 『承政院日記』 제2447책, 憲宗 12년(1846) 2월 9일 “臣伏聞翼宗朝代聽時, 使工分繪耕織於屏, 又令閣臣撰序, 命名曰務本, 告成在於庚寅以後, 其屏尙奉本閣, 追念聖意, 於戲, 不忘也.” 上曰, “予未及知之矣. 閣臣撰序者, 何人乎?” 淳穆曰, “耕圖序, 故相臣金履喬所撰也. 織圖序, 故相臣朴宗薰所撰也.” 上曰, “耕織圖, 何以分繪乎?” 淳穆曰, “耕圖, 自播種至于穫稻也, 織圖, 自養蠶至于成織也.”

이 그림에서 경도의 장면으로는 농가에서 행해진 봄철 播種부터 가을철 穫稻까지의 과정이, 직도의 장면으로는 봄부터 겨울철까지 이루어진 養蠶부터 成織까지의 과정이 묘사되었다.

2. 조선식 경직도의 사례

현존하는 경직도는 6~12폭의 그림이 한 벌을 이루는 各幅 병풍으로 구성되어 있다.⁵²⁾ 본고에서 살핀 경직도는 농가에서 벌어지는 농잠 모습이 일 년 열두 달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방식이다. 구성은 평원법으로 전개되는 산수를 배경으로 2단 또는 3단의 구도에 농업과 잠업 장면이 배치되었다.

조선 후기 궁중의 경직도는 경도와 직도로 구분하여 농사짓고, 잠직하는 모습을 작업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민간의 수요에 의해 제작된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2폭 <경직도>[그림 6]가 그 사례이다.

이 작품은 화가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제12폭에 “壬寅小春上浣石雲題”라는 款署와 그 아래에 白文方印의 「權東壽印」, 朱文方印의 「雲石印」이 있어 조선 말 문신 權東壽⁵³⁾가 1902년 봄에 贊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1902년 또는 그 전에 그려진 것이 분명하다.

51)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上)』, 돌베개, 2001, 58~185쪽. 조선 후기 祿取才 화제로 ‘耕織’이 종종 출제되었다. 이는 경직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경직 장면은 농촌의 일상을 담은 풍경이므로 ‘俗畵’의 화제로도 많이 출제되었다.

52) 병풍은 연폭 병풍, 각폭 병풍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하나의 그림을 여러 병풍에 나눈 것이고, 후자는 병풍의 각 폭마다 그림이 다른 것이다.

53) 권동수는 조선 말기 문신으로 고종의 명을 받아 1894년 金玉均, 朴泳孝 등을 암살할 목적으로 일본에 밀파되었으나 실패한 인물이다. 行書와 篆書에 매우 능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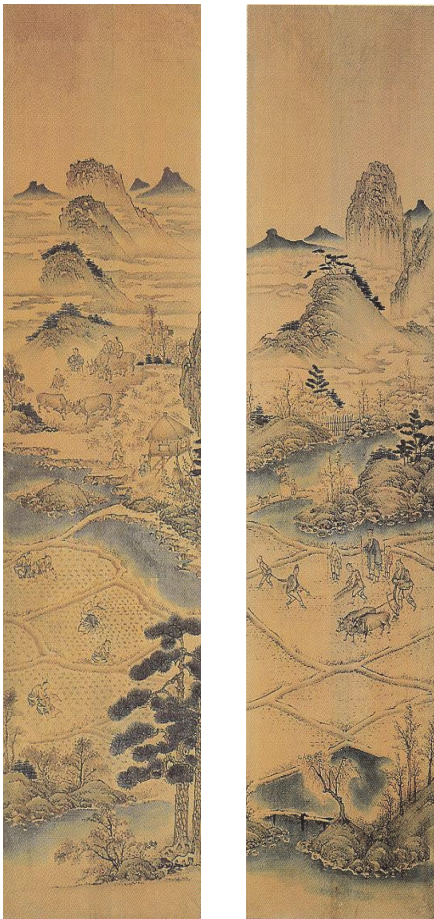


[그림 6] 作者未詳, 〈耕織圖〉, 19세기 후반,
絹本彩色, 195.5×41.5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제3쪽(우), 제6쪽

이 경직도는 씨레로 논
바닥을 고르는 작업부터 추
수까지의 농경 장면과 뽕잎
채취부터 비단 짜기까지의
잠직 장면이 각각 한 폭에
충실히 묘사되었다. 산수
는 미점준과 피마준을 사용
한 남종화법을 따르고 있으
나 계절의 흐름에 따른 화
풍 상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인물 표현은 소략하나 서정
적인 농촌의 풍경을 운치
있게 표현하였다.

민간의 경직도에는 경직
장면을 충실하게 묘사하면
서 세부에서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도상이 반복되는 작
품이 있다. 이를 통해 경직
도가 畫本을 통해 제작되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
대학교박물관 소장 12폭
<경직도>[그림 7]와 충주
박물관 소장 8폭 <경직도>
[그림 8]가 그 예가 된다.

전자에는 서양화법의 영향이 보인다. 중첩된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세에는
미점이 더해졌으며, 소나무는 농묵으로 처리하였다. 곳곳의 산봉우리와 수
면은 푸르게 선염하였는데, 원경과 중경 사이의 운무는 도식적인 형태이다.



[그림 7] 作者未詳, 〈耕織圖〉, 19세기, 絹本淡彩, 136×32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제3폭(우), 제6폭

등장인물의 작업하는 모습에서 생동감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쟁기를 끄는 소는 선염으로 표현하여 입체감이 나타나 있다. 경직의 장면을 충실히 묘사한 가운데 소싸움, 사냥 등 농한기의 모습도 표현되어 정감이 느껴진다.

제3폭에는 농부들이 소를 몰아 땅을 갈고 파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는 ‘겨리’라고 불리는 것으로 주로 중부 이북 산간지역에서 쓰였다고 한다.⁵⁴⁾ 또한 파종기로 씨를 뿌리는 모습⁵⁵⁾도 그려져 있어 조선 후기의 농사법이 있

54) 소의 숫자에 따라 호리와 겨리로 구분된다. 전자는 한 마리가 끄는 경우이고, 후자는 두 마리가 끄는 경우이다. 중부 이북 산간지역에서는 겨리농경이,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호리농경이 중심을 이루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2005, 132쪽.

55) 파종기는 망태기에 씨앗을 담은 다음 손으로 뿌리는 전통적 방식에서 크게 진전된 농기구라 할 수 있다. 박호석, 『한국의 재래농기구』, 한국학술정보, 2004,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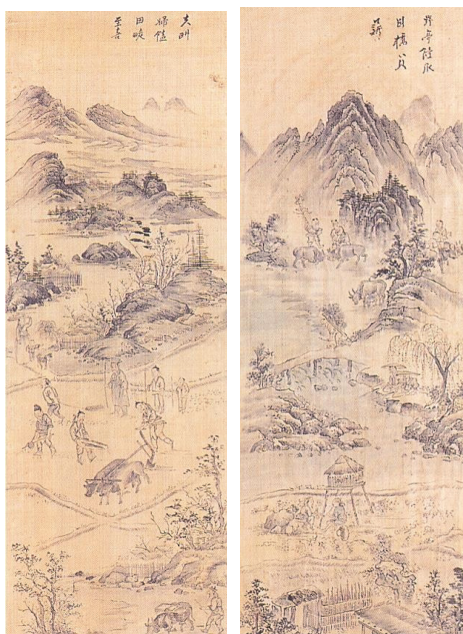
는 그대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전자를 모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계절의 변화를 참작했을 때 그림은 순서가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제3폭의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 제6폭의 농한기에 소싸움을 즐기는 아이와 원두막에서 휴식을 취하는 농부의 모습, 제8폭의 겨울철 사냥을 즐기는 사람의 모습이 차용되었다.

화면을 상하 2단으로 구분한 구도인데, 그림 내용의 전개를 자연스럽게 이

어주는 역할을 하는 수목의 크기가 다른 경직도와 달리 현저히 작아지면서 구성면에서 각 장면 간의 유기적인 연결과 원근감이 결여되었다. 운무의 형태 역시 매우 도식적이나 산수, 가옥, 인물 등에는 명암을 주었다.

19세기에는 중국 패문재경직도의 도상을 복고하는 작품이 등장한다. 그림의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조선의 농촌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⁵⁶⁾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여 단정하기 어려우나 당시 조선 사대부 지식인층이 원시 유학에 관심을 집중했던 경향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관심



[그림 8] 作者未詳, 〈耕織圖〉, 105×39cm,
충주박물관 소장.
제1폭(우), 제2폭

56) 이태호, 『풍속화(들)』, 대원사, 2016, 100쪽.



[그림 9] 崔禹錫, 〈耕織圖〉, 131×38.5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제1폭(우), 제8폭

과 결부되어 빈풍칠월도와 경직도류가 중국적인 풍조를 띠었을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 경직도의 여맥은 20세기 초로 이어진다. 대표 작품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崔禹錫(1899~1969)의 <경직도>[그림 9]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오중탑동노인 최우석이 그렸다(五重塔洞老人崔禹錫寫)’고 쓰여 있어 그의 말년 작품으로 보인다.⁵⁷⁾ 최우석이 활동한 시기에는 조선서화미술회강습소가 세워져 많은 화가를 배출하였는데 전통 도화서의 기능을 계승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⁵⁸⁾ 따라서 최우석은

조선서화미술회강습소에서 전통화법을 익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10폭으로 구성된 <경직도>는 전통적인 남종화풍으로 근경, 중경, 원경의 3단 구성에 패문재경직도에서 보이는 도상 중 2~3개를 조합하여 하나의

57) 국립민속박물관, 『민화와 장식병풍』, 2005, 39~40쪽.

58) 이수미, 「궁중장식화의 개념과 그 성격」, 『(조선시대 궁중장식화 특별전) 태평성대를 꿈꾸며』, 국립춘천박물관, 2004, 89쪽.

화폭을 구성한다. 경도는 종자 담그기부터 모심기, 추수, 탈곡까지 직도는 뽕잎 따기, 누에 치기, 옷감 마르기까지 패문재경직도의 도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화풍 경직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 말기에는 경직도의 공간 구성과 인물 표현에서 민화적인 필치를 보여 주는 작품이 많이 등장한다.

그밖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6폭 <경직도>[그림 10]는 지본채색의 작품으로 경도는 논갈이부터 씨 뿌리기, 모심기, 김매기, 가을걷이까지의 장면이 차례로 그려져 있다. 직도는 옷감 자르기, 누에 고르기, 베틀로 옷감짜기와 풀먹이기 장면 등으로 간략하게 그려져 있다. 농잠 장면에 더하여 새참내는 아낙, 잠자리 잡는 아이, 원두막과 참외밭 풍경, 글공부하는 아이 모습 등 농촌의 생활모습이 곳곳에 배치되었다.

구성을 보면 본래 탈곡과 추수 후 풍경 등이 포함된 8폭병이었을 것이다.⁵⁹⁾ 중경과 원경 사이가 좁아지면서 평면화된 민화풍이 강한 작품이다. 그리고



[그림 10] 作者未詳, 〈耕織圖〉, 20세기 전반, 紙本彩色, 82×39.5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제2폭(우), 제6폭.

59)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2005, 40쪽.

집안과 집 밖으로 대별되는 이단 구도가 사용되었다. 구불구불한 선으로 표현된 산, 절제된 동작에 무표정한 인물 표현도 도식화된 양상이다. 신체의 비율은 찌막하며 얼굴은 다소 큰 편이다. 모든 인물의 이마가 유난히 넓으며 하관이 좁고 각진 모습이다.

조선 후기 경직도는 6~12폭의 그림이 한 벌을 이룬 하나의 병풍으로 구성되어 한 해의 월별 흐름에 따라 농가에서 농사짓고 잠직하는 모습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조선의 경직도로 변모하였다. 현존하는 작품 중에는 동일한 도상이 반복되는 작품군이 있어 모본이 존재한 것으로 보여, 당시 모본이 유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시대 경직도의 수용 및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무일도와 빈풍칠월도에 기반을 둔 경직도의 도입 배경은 유교 경전을 중시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관습, 그리고 당시 발달한 중국 강남농법 적용을 통한 농업 기술 제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숙경직도와 패문재경직도는 수입 직후 왕권 강화, 중앙집권체제의 확립 등 새 국왕의 필요에 따라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국왕에게 경직도는 修身 및 정치 이념 천명의 도구였다. 영조는 경직도를 왕위계승에서 정통성을 보완하는 기재로 삼았다. 고종은 재위 초기 경직도를 거론함으로 왕권의 토대를 강화하려 하였다. 또한,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였던 시기 국가의 근본인 농상의 중요성을 경직도를 통해 강조한 것에서 그것의 중요성을 간취할 수 있다.

농본과 민본은 성군의 도리로 왕세자로 하여금 농상의 어려움과 백성의 고됨을 체득하게 하는데 경직도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소양교육을

위한 초학 교재와 함께 경직도가 제작되어 교육 자료로 사용되는 시기는 왕세자의 나이 10세 전후였다. 시강원에서 제작과 진설을 담당한 회화 자료는 후대의 왕세자에게 전해져 대를 이어 이용되었음을 『춘궁일기』에서 확인된다.

궁중에서 쓰인 경직도는 조선 후기에 이르면 활용 계층이 확대되는데, 윤봉오의 『석문집』에 따르면, 경직도를 지방 관리가 가지고 농정에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패문재경직도 전래 직후 경직도는 당시 유행한 청록산수를 배경으로 한 삼단구도에 패문재경직도의 도상을 발췌하여 조합하는 형식이었는데 월별로 농가에서 농사짓고 잠직하는 모습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조선식 경직도로 변모한다. 이러한 도상 변화는 화풍의 영향도 있지만 『예기』 「월령」과 『시경』 「빈풍칠월편」을 조선의 시의와 풍속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숙종의 『열성어제』와 이옥의 『박천집』에서 그러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왕실에서는 경직도를 병풍으로 제작하여 왕과 왕세자의 처소에 설치하여 관성의 매체로 활용하였다. 조선 후기 경직도는 6~12폭의 그림이 한 벌을 이루어 하나의 병풍으로 구성된다. 사계절 농가에서 농사짓는 일련의 과정과 농한기의 모습을 시각화한 것으로, 동일한 도상이 반복되는 작품이 있어 모본을 만들어 제작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직도가 화목을 넘어 국정운영에서 적극 활용된 것은 조선 사회에서 경직도는 갖는 위상을 보여준다. 경직도는 위정자가 늘 가까이에 두고 자신을 되돌아 보고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생각하게 해주는 시각적 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東宮日記』

『博泉先生別集』

『石門集』

『承政院日記』

『列聖禦製』

『朝鮮王朝實錄』

『虛白堂集』

국립민속박물관, 『민화와 장식병풍』, 200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한국서화도록14』, 2006.

국립춘천박물관, 『(조선시대 궁중장식화 특별전) 태평성대를 꿈꾸며』, 2004.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 上』, 돌베개, 2001.

고연희, 『그림, 문학에 취하다』, 아트북스, 201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2005.

김성혜, 『재위 전기 고종의 통치활동』, 선인, 2013.

김지영, 『숙종대왕 이순의 성인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박호석, 『한국의 재래농기구』, 한국학술정보, 2004.

수원박물관, 『병풍 속 글씨와 그림의 멋』, 수원박물관, 2011.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2008.

이태호, 『풍속화(둘)』, 대원사, 2016.

홍선표, 『조선 회화』, CAS 한국미술연구소, 2014.

金順娥, 「朝鮮時代 耕織圖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金榮煜, 「조선시대 王室 鑑戒畫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지영, 「영조대 親耕儀式의 거행과 『親耕儀軌』」, 『한국학보』28, 일지사, 2002.

노대환, 「숙종·영조대 對明義理論의 정치·사회적 기능」, 『한국문화』32, 규장각

- 한국학연구원, 2002.
- 송민수, 「조선시대 왕실 패문재경직도의 제작 의미」, 『기초조형학연구』23, 한국 기초조형학회, 2022.
- 유미나, 「17세기, 인·숙종기의 圖書署와 畫員」, 『강좌미술사』34, 한국불교미술 사학회, 2010.
- 육수화, 「조선시대 왕위계승교육의 변화양상」, 『東洋古典研究』44, 東洋古典學會, 2011.
- 이매, 「조선시대 中國 耕織圖의 유입과 수용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이수미, 「궁중장식화의 개념과 그 성격」, 『(조선시대 궁중장식화 특별전) 태평성대를 꿈꾸며』, 국립춘천박물관, 2004.
- 李泰鎭, 「小水期(1500-1750) 천변재이 연구와 朝鮮王朝實錄」, 『歷史學報』149, 역사학회, 1996.
- 이혜경, 「傳 진재해의 丁醜年作 <蠶織圖> 소고」, 『국립중앙박물관한국서화도록14』, 국립중앙박물관, 2006.
- 장지연, 「고려-조선 초 『書經』 「無逸篇」 과 「洪範篇」 이해의 변화」, 『사학연구』 112, 한국사학회, 2012.
- 鄭炳模, 「鬪風七月圖類 繪畫와 朝鮮朝 後期 俗畫」, 『考古美術』174, 韓國美術史學會, 1987.
- , 「朝鮮時代 後半期の 耕織圖」, 『美術史學研究』192, 韓國美術史學會, 1991.
- , 「朝鮮時代 後半期 風俗畫의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 한정수, 「高麗時代 『禮記』 月令篇의 도입과 그 의미」, 『월령과 국가』, 민속원, 2010.
- , 「조선 초 月令의 이해와 국가운영」, 『韓國思想史學』36, 한국사상사학회, 2010.
- 홍선표, 「조선시대 풍속화 발달의 이념적 배경」, 『풍속화』 (한국의 미 19), 중앙일보사, 1985.

국립민속박물관

<https://www.nfm.go.kr/>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Abstract

THE TRANSITION AND MEANING OF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耕織圖) IN THE JOSEON DYNASTY

LEE SUJIN (LEE, SU JIN)

This article examines the transition process and meaning of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 historical records and painting materials. The review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appears that the background to the introduction of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into the Joseon society is the custom of emphasizing Confucian scriptures and visualizing them, and that it was to improve agricultural technology through the application of Jiangnan Farming Methods, which were developed in China at the time.

For the king,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were the basis (本) of discipline (修身) and a tool to declare his political ideology. King Yeongjo used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as a means of complementing legitimacy in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and in the early days of his reign, King Gojong attempted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royal authority by mentioning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For the crown prince,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were utilized as important material to help him learn about the difficulties of farming and the hardships of the people. It is confirmed in 『*Chungungilgi*』 that the painting records used for production and ritual setting in the education

lecture hall were passed down to later crown princes and u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use of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in the royal court expanded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according to Yun Bong-oh's 『*Seokmunjip* (poetry collection)』, it was found that local officials took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and used them in agricultural policy.

Immediatel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aemunjae_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the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were transformed into Joseon-style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in which scenes of farming and weaving at a farm are sequentially arranged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welve months of the year. These iconographic changes are also influenced by the painting style, but it seems to have originated from efforts to reorganize 「Wolryeong」 in 『*Yegi*』 and 「Binpungchilwolpyeon」 in 『*Sigyeong*』 to suit Joseon's own timeliness and custom, and such aspects can be seen in King Sukjong's 『*Yeolseongeoje*』 and Lee Ok's 『*Bakcheonjip* (poetry collection)』.

The reason why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were actively used in state administration beyond reconciliation shows the status that the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has in Joseon society.

Key Words : 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Nusuk_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Paemunjae_Pictures of Tilling and Weaving, Muilpyeon, Binpungchilwolpyeon, Wolryeong